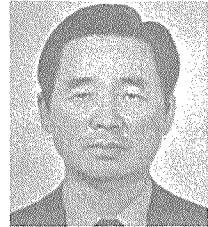


# 새로운 기생충 연구로의 전환 필요

우리나라 기생충 관리 방향



최원영

옛날부터 전형적인 농경사회로 살아오던 우리나라는 토양매개성 기생충의 왕국으로 불리어왔다. 그러나 한국동란이 휴전된 후 점차로 근대국가로 탈바꿈해가는 과정에서 기생충관리문제도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보사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구충사업을 하게 되었다.

그 후 경제사회적 발전과 농업의 근대화 및 위생지식의 발달 등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으로 근래에는 장내기생충감염이 많이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도 멀어져갔고 일부사람들은 이제 기생충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



접촉감염성 장내기생충인 요충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10~20%이상의 감염율을 나타내고 있다.

는 경우까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986년도의 제4차 전국장내기생충감염현황을 볼 때 총란양성율은 전국민의 12.9%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1971년부터 5년간격으로 전국장내기생충감염현황을 조사하고 있는 바 1971년도의 총란양성율이 84.3%였던 사실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 4,000만명중 516만명이 장내에 기생충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같은 성적은 농촌의 22.8%와 도시의 7.0%를 평균한 것이고 또 생활수준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중점사업의 하나인 학생검변과 구충사업도 근래에는 도시지역은 년2회에서 년1회로 사업을 축소

시킨 바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산간지방이나 낙도지역의 장내기생충감염현황은 1988년에도 일부 낙도의 감염율이 36.8%로 나타난 바 있었고 또 경상남도 통영군의 어떤 낙도에서도 30.2%라는 지역이 있다. 이같은 조사성적은 아직도 이들 기생충으로부터 국민이 해방되려면 관리의 고삐를 늦출 수 없음을 말해준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의 도양매개성충류는 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감소되는 경향에 있다. 그러나 같은 장내기생충중에도 접촉감염성인 요충은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국민학생의 1회검사에서 10~20%의 감염율을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매우 높은 감염율을 짐작할 수 있는바 단순한 생활사때문에 좀처럼 감소될 조짐이 안보인다.

그 외에 식품을 매개로 전달되는 기생충

의 하나인 아나사키스유충의 감염은 해산 어류를 즐겨먹는 나라에서 1960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화란이나 일본등지에서는 많은 감염예가 소개되어 온 기생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여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매년 감염예가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담수어로 매개하는 간디스토마증이나 또는 민물게나 가재로 매개되는 페디스토마증도 근래에 특효약이 개발되어 치료가능한 질환이 되기는 하였으나 사람에게 따라서는 치료약개발을 기화로 이들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는 경향까지 있는 듯한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돼지고기나 쇠고기의 생식으로 오는 촌충류감염이라던가 또 돼지고기에서 유래하는 갈고리촌충의 애벌레인 낭미유충증은 피하나 근육, 심지어는 뇌내기생으로 중독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원충류감염은 일반적 분변검사로 검출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그 중 각종 병원성아메바가 검사실에서 보고가 거의 없는 사실은 낮은 감염율보다도 육안검출이 잘 안되는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메바 외의 원충류로 중요한 것에는 폐염의 일종인 뉴모시스티스 카리니나 독소 플라즈마같은 것으로 최근 항암제나 항생제 및 부신피질 호르몬의 남용등으로 발증예

우리나라의 기생충관리는, 5년간격의 전국장내기생충감염실태조사를 통한 기본자료의 확보와 함께 산간벽지나 낙도지역의 실태파악과 구충사업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기생충 분야에서도  
없어져가는 기생충과  
새로이 중요성이 인식되는  
기생충이 교체되어가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가 증가하고 있고 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합병증으로서 점차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종류이다.

한편 해외취업과 해외여행자의 급증은 해외에 있는 각종 풍토병의 국내유입을 초래하고 있는바 그 중 중요한 것은 말라리아, 사상충증, 트리파노조마증, 리슈마니아증 및 주혈흡충증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말라리아는 과거 우리나라에도 창궐하였으나 근래에는 국내발생에는 없고 열대지방에서 귀국하는 사람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이환되고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충자로 들어온다. 이들은 최근에 해외여행의 경력을 문진함으로써 참고로 할 수 있으나 그 발열형태가 불규칙할 경우가 많아서 다른 질환과 혼동하기 쉽고 또

말라리아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부족등으로도 오진되기 쉽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기생충관리는 정부차원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한 현재의 5년간격의 전국장대기생충감염실태 조사를 계속함으로써 기본자료를 확보하고, 동시에 이제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였던 산간벽지나 낙도지역을 상대로 신태과약과 구충사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수입기생충에 대한 신태과약과 대책도 정부차원에서 필요하겠고 또 해외취업자나 해외여행자에 대한 풍토병소개와 예방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요충증같은 높은 감염율이 지속되는 특수기생충에 대한 구충사업의 확대와 식품을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교육이 필요하겠다.

또 대학연구실을 통한 회귀기생충질환에 대한 연구와 대책등의 연구 및 의사를 포함한 각종 보건관계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임상각과에서는 기생충이 원인이 되는 여러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숙달로 원인충을 규명한 후 근본적인 치료방침을 세우는 자세를 가지고 환자에 봉사하는 것이 기생충관리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기생충분야에서도 없어져가는 종류와 새로이 중요성이 인식되는 종류등이 교체되는데 후자의 질환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톨릭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